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이 유 진

이대발달장애아동센터

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만 5~6세 아동들 194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모에게서 유아기질척도, 모의 양육태도 척도,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위해, 아동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를 파악하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고,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 5~6세 아동들에게서 연령 상 의도적 통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의도적 통제가 더 높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와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에서만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모든 양육태도에서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의도적 통제, 양육태도, 아동, 심리적 적응, 매개효과

[†] 교신저자: 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E-mail: 914janet@hanmail.net

아동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의 예측에 있어 서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의도적 통제란, Rothbart와 Bates(2006)가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 개념이다. 이는 주의를 조절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정서적 자기조절(self regulation) 능력을 뜻한다(장혜인, 2010; 한영숙, 2010; Eisenberg et al., 2007).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하위 반응을 수행하는 능력이다(배윤진, 임지영, 2011; Rothbart, Ellis, Rueda & Posner, 2003). 따라서 어떤 아동이 정서적으로 반응성이 큰 기질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의도적 통제가 크다면 정서적 반응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 조절 및 심리적 적응과 의도적 통제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 점점 커지고 있다(장혜진, 2010; Valient, Lemery-Chafant & Reiser, 2007; 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Zhou et al, 2007; Kochanska & Knaack, 2003; Deng, 2008).

의도적 통제는 기질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먼저 의도적 통제는 영유아 시기에 출현하는 데, 생애 첫 4년에 걸쳐 급속도로 발전하고 학령기를 거치면서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Kochanska & Knaack, 2003). 장혜인(2010)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는 비록 아동의 다른 기질 특성들(예: 반응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현되지만, 발달이 시작된 후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발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Dennis, Brotman, Huang과 Gouley(2007)의 연구에서도 4~6세 연령의 아동들에게 의도적

통제를 측정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도적 통제가 좀 더 발달하지만 5~6세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변화율이 낮아지며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고 점차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령기로 넘어가면서 의도적 통제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학교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의도적 통제가 발달하기보다는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이러한 의도적 통제는 타고난 기질 차원으로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그 발현 시기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최근에는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배윤진, 임지영, 2011), 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진 환경적 요인은 바로 부모의 양육이다(배윤진, 임지영, 2011; 장혜인, 2010).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기조절과 관련해서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조절 능력이 성숙할 때까지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인 의도적 통제의 발달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하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양육을 하면 아이의 정서적 각성이 지나치게 높아져 목적에 맞게 주의를 옮기거나 자기 조절 기술이 적절히 발달하는 데 어려움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다(Hoffman, 2000:

Eisenberg, 2005에서 재인용). 또한 모가 자녀에게 비난하는 것과 같은 적대적인 말투를 자주 쓰는 것이나 부정적인 정서 표출을 자주 보이는 것은 24~36개월의 영유아들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Poehlmann, Schwichtenberg, 2010). Moilanen 등(2010)의 연구에서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적대/거부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낮은 통제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온정적이고 따뜻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높은 통제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세 아동에게 하는 모의 양육방식이 5.5세 아동의 의도적 통제능력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후에 좀 더 높은 의도적 통제 발달양상을 보이고, 과잉통제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보다 낮은 의도적 통제 발달양상을 보였다고 한다(Graziano, Keane & Calkins, 2010). 그밖에도 신체적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 권위있는 양육태도는 높은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였으며(Eisenberg, Lei Chang et al, 2009), 좀 더 나아가 청소년들, 10~14세 여자 아이들에게서도 부정적인 가족 분위기를 겪은 아이들의 경우, 의도적 통제가 더 낮게 나왔다는 선행연구도 있다(Loukas, Roalson & Herrera, 2010). 의도적 통제가 비일관적인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완화한다는 연구도 있어(Lengua, 2008), 의도적 통제의 발달과 양육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도적 통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내현화 문제와 같은 심리적 적응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Eisenberg, Valiente et al, 2009; Eisenberg, Yue Ma et al, 2007; Valiente et al, 2003;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Valient, Lemery-Chalfant & Swanson, 2009). 8~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Muris 등(2008)은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불안, 우울, 공격성) 간에 부적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Kochanska와 Knaack(2003)은 22~45개월의 의도적 통제가 높은 영유아들이 56개월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의 발달을 보이고, 73개월 때는 더 낮은 외현화 문제를 보인 연구결과를 제안하였다.

모의 양육방식과 아이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 간에 의도적 통제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선행연구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9; Kochanska & Knaack, 2003; Valient, Lemery-Chafant, Swanson, 2009). 예를 들어, Spinard(2007)는 18개월 영유아와 3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애정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인 양육 방식과 영유아들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배윤진, 2011), 국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문제 행동 간에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문영경, 2009).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도적 통제에 대해 외국에서 주목하고 연구되어 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방식과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사이에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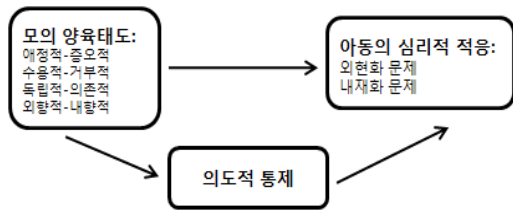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한다. 특히, 본 저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의 양육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정서적 강도와 이에 따른 심리적 경향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문화 양식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성’이라고 정의내린 양육태도의 개념을 채택하였다(서동미, 1996; 김기홍, 200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도적 통제는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 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외현화 문제-을 매개하는가?

(2) 의도적 통제는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 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내재화 문제-을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6세의 아동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기타 발달문제(예: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나 인지적 기능의 어려움이 없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94)

	구분	빈도(%)
연령	만 5세	102(52.6)
	만 6세	92(47.4)
성별	남아	94(48.5)
	여아	100(51.5)
부 학력	대졸 이상	172(88.7)
	고졸	19(9.8)
	중졸	0(0)
	초졸	1(0.5)
모 학력	대졸 이상	163(84)
	고졸	28(14.4)
	중졸	0(0)
	초졸	0(0)
가정 월 소득	600만원 이상	43(22.2)
	500~600만원	49(25.3)
	300~400만원	57(29.4)
	200~300만원	32(16.5)
	100~200만원	6(3.1)
	100만원 미만	2(1)

는 평균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아동들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담당 교사의 관찰을 통해 발달적 어려움이나 이해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의 아이들은 선별하였으며,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수반을 연구 참여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를 모두 수거한 결과, 미응답 및 누락 등의 이유로 자료가 불충분한 15명의 질문지를 제외하여 총 1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험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5세 102명 (52.6%), 만 6세 92명(47.4%)이고, 성별로는 남아 94명(48.5%), 여아 100명(51.5%)이었다. 또한 부의 학력은 대졸 이상 172명

(88.7%), 고졸19명(9.8%), 초졸 1명(0.5%)이었으며, 모의 학력은 대졸 이상 163명(84%), 고졸 28명(14.4%)이었다. 가정 내 월 소득 수준은 300만원~4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군,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상~상 수준 정도로 파악된다.

도구

유아 기질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1996)의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를 이경옥(2004)이 한국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표준화시킨 도구를 참고하였으며, CBQ 중 의도적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의도적 통제는 자극 통제(Inhibitory Control), 주의 집중력(Attentional Focusing), 낮은 자극 선호성(Low Intensity Pleasure), 자극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으로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극 통제'는 지시나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접근 반응을 계획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예: 내 아이는 기다리라고 하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다), '주의집중력'은 과제와 관련한 분야에 주의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예: 내 아이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때 늘 집중해서 한다)을 의미한다. '낮은 자극 선호성'은 낮은 자극의 정도, 비율, 복잡성, 새로움, 부조화와 같은 상황에 관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한다(예: 내 아이는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자극 민감성'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아주 낮은 자극에 대한 감지(예: 내 아이는 부모가 새 옷을 입으면 금방 알아본다)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고, 어느 문항에 대해서 유아의 행동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안됨' (6)번에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자극통제'는 .67, '주의집중력'은 .67, '낮은 자극 선호성'은 .64, '자극 민감성'은 .68, 총 '의도적 통제'의 신뢰도는 .84로 나왔으며, 낮은 신뢰도의 문제로 삭제된 문항은 '내 아이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에는 좀처럼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문항으로 '자극 통제' 영역에 속하는 문항이었다. 따라서 낮은 신뢰도의 문제로 한 문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총 25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모의 양육태도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Scha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에서 손소영(2004)이 애정적-증오적 태도(예:28. 나는 아이에게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수용적-거부적 태도(예: 1.나는 아이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독립성 조장-의존적 조장 태도(예: 13.나는 아이가 부모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도록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편이다), 외향적-내향적 태도(예: 35.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여겨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때가 많다)의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5점 Likert식 척도이며 각 영역별 문항수는 9개씩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애정적-증오적 태도 .85, 수용적-거부적 태도 .71, 독립성 조장-의존적 조장 태도 .71,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 .7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 및 Achenbach(1991)가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오경자와 이해련과 홍강의 및 하은혜(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세~17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이 지난 6개월 동안 보인 문제 행동에 대해 그 부모가 0점~2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K-CBCL로 내면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위축, 신체적 증상, 우울/불안’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산하였고,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행, 공격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산하였다. 각 항목은 3점 Likert 식 척도이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문제행동을 시사한다. 오경자 등(1997)에서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62~.86으로 보고되었다.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 집 및 유아교육기관 6곳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자가 6곳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협조 승낙을 받은 기관에서 유아기질척도 및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행

동평가 척도 설문지를 모에게 배포하였다. 단, 평균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아동들을 모집하기 위해 설문지 배포 전에 6개월 이상 아동들을 담당한 교사들과 면담을 하여 특별하게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발달장애(예: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런 아동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어린 이집에 특수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반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를 보낼 때는 하원시간을 이용하여 서류봉투에 안내문 및 질문지와 함께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본 연구자가 다시 각 기관에 방문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미응답이 있거나 문항의 표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본 연구자가 설문지에 적혀있는 연락처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응답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본 후, 각 변인들 간에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그 후, 연구 문제인 의도적 통제가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는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이와 같은 중다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 변인들이 회귀분석 실시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중회귀분석 시 공차한계(Tolerance)값이 모두 0.1을 초과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송지준, 2012). 또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고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한편,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Sobel의 방정식은 $z\text{-value} = a \times b / \sqrt{b^2 \times SE_a^2 + a^2 \times SE_b^2}$ 인데, 여기서 a는 경로 a(독립변인→매개변인)의 비표준화 계수, b는 경로 b(매개변인→종속변인)의 비표준화 계수, SEa는 경로 a의 표준오

차, SEb는 경로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결 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

연구 문제 결과를 분석하기 앞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 간에서는 의도적 통제가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24, p < .01$). 즉, 본 연구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 의도적 통제

표 2. 연령 간 의도적 통제,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 차이 검증 결과

		5세(N=102)	6세(N=92)	t	sig.(양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의도적 통제	4.06(.43)	4.01(.39)	.88	.382
모의 양육태도	애정적-증오적	3.95(.53)	3.84(.60)	1.38	.170
	수용적-거부적	3.22(.48)	3.24(.54)	-.27	.789
	독립적-의존적	3.64(.45)	3.62(.50)	.27	.784
	외향적-내향적	3.75(.42)	3.68(.58)	.99	.323
아동의 심리적 적응	외현화 문제	52.71(4.63)	53.39(5.06)	-.97	.333
	내재화 문제	51.84(3.77)	52.63(4.12)	-1.38	.168

*p < .01

표 3. 성별 간 의도적 통제,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 차이 검증 결과

		남자(N=93)	여자(N=101)	t	sig.(양쪽)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의도적 통제	3.98(.44)	4.12(.36)	-3.24	.001*
모의 양육태도	애정적-증오적	3.88(.59)	3.92(.54)	-.42	.676
	수용적-거부적	3.15(.51)	3.29(.50)	-1.96	.051
	독립적-의존적	3.60(.46)	3.66(.48)	-.98	.329
	외향적-내향적	3.75(.51)	3.68(.50)	.94	.349
아동의 심리적 적응	외현화 문제	53.01(5.04)	53.06(4.67)	-.07	.944
	내재화 문제	52.71(4.48)	51.76(3.35)	1.66	.099

*p < .01

가 더 높게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의 의도적 통제 매개 효과

의도적 통제가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중다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증오적 태도, 수용적-거부적 태도, 독립성 조장-의존적 조장 태도, 외향적-내향적 태도로 구분된다. 그 중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 ‘수용적-거부적 양육 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 사이에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가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단계 1; $\beta=.44$, $p < .01$), 둘째,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였다(단계 2; $\beta=-.19$, $p < .01$). 셋째, ‘애정적-증오

적 양육태도’와 의도적 통제가 동시에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의도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단계 3; $\beta=-.33$, $p < .01$),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는 의도적 통제와 함께 있을 때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가 모의 ‘애정적-증오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 (1982)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3.68$, $p < .05$).

두 번째로,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첫째,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가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단계 1; $\beta=.45$, $p < .01$), 둘째,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단계 2; $\beta=-.33$, $p < .01$). 셋째,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와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4.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F	R2
1단계					
애정적-중요적	의도적 통제	.44	6.724*	45.22	.19
2단계					
애정적-중요적	외현화 문제	-.19	-2.672*	7.14	.04
3단계					
애정적-중요적	외현화 문제	-.05	-.603	13.50	.12
의도적 통제		-.33	-4.379*		
1단계					
수용적-거부적	의도적 통제	.45	6.927*	47.99	.20
2단계					
수용적-거부적	외현화 문제	-.33	-4.762*	22.68	.11
3단계					
수용적-거부적	외현화 문제	-.21	-2.841*	17.89	.16
의도적 통제		-.26	-3.43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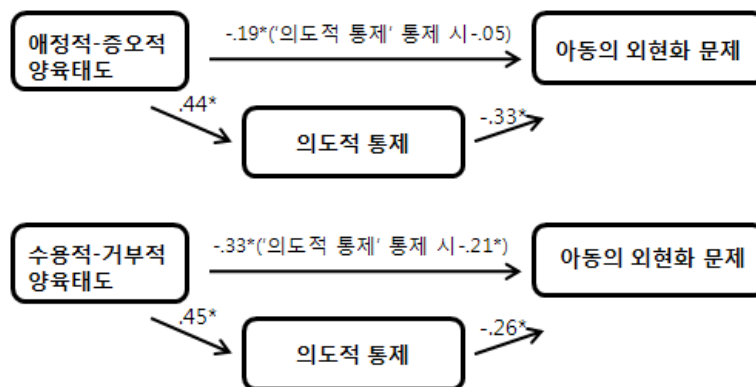


그림 2.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의도적 통제에 대한 매개효과의 수정 모형 (p<.01)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의도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단계 3; $\beta=-.26$, $p<.01$),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영향력 줄어들었다(단계 3; $\beta=-.21$, $p<.01$). 따라서 의도적 통제가 모의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1982)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3.13, p<.05$).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내재화 문제 간의 의도적 통제 매개 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중다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에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라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와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와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가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으며(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단계 1; $\beta=.44, p<.01$,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 단계 1; $\beta=.22, p<.01$), 둘째, ‘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와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단계 2; $\beta=-.25, p<.01$;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 단계 2; $\beta=-.21, p<.01$). 셋째, 독립변인(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과 의도적 통제가 동시에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의도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내재화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변인(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은 의도적 통제와 함께 있을 때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단계 3; $\beta=-.32, p<.01$;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 단계 3; $\beta=-.33, p<.01$). 따라서 ‘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및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 간에 의도적 통제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시사된다. Sobel Test(1982)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z=-3.59, p<.01$;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 $z=-2.63, p<.01$).

한편,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와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첫째,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와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가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으며, 둘째,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와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단계 1; $\beta=.45, p<.01$, 단계 2; $\beta=-.36, p<.01$;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 단계 1; $\beta=.28, p<.01$, 단계 2; $\beta=-.27, p<.01$). 셋째, 독립변인(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과 의도적 통제가 동시에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의도적 통제가 내재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동시에, 독립변인(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의 영향력도 그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상을 보였다(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단계 3; $\beta=.25, p<.01$;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 단계 3; $\beta=-.18, p<.01$). 따라서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및

표 5.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F	R2
1단계					
애정적-증오적	의도적 통제	.44	6.724*	45.22	.19
2단계					
애정적-증오적	내재화 문제	-.25	-3.351*	11.23	.06
3단계					
애정적-증오적	내재화 문제	-.10	-1.280	15.27	.14
의도적 통제		-.32	-4.277*		
1단계					
수용적-거부적	의도적 통제	.45	6.927*	47.99	.20
2단계					
수용적-거부적	내재화 문제	-.36	-5.320*	28.31	.13
3단계					
수용적-거부적	내재화 문제	-.25	-3.358*	20.81	.18
의도적 통제		-.25	-3.425*		
1단계					
독립적-의존적	의도적 통제	.22	3.093*	9.57	0.47
2단계					
독립적-의존적	내재화 문제	-.21	-2.901*	8.41	0.42
3단계					
독립적-의존적	내재화 문제	-.13	-1.935	16.48	.15
의도적 통제		-.33	-4.853*		
1단계					
외향적-내향적	의도적 통제	.28	4.049*	16.39	0.79
2단계					
외향적-내향적	내재화 문제	-.27	-3.904*	15.24	0.74
3단계					
외향적-내향적	내재화 문제	-.18	-2.672*	18.43	.16
의도적 통제		-.31	-4.48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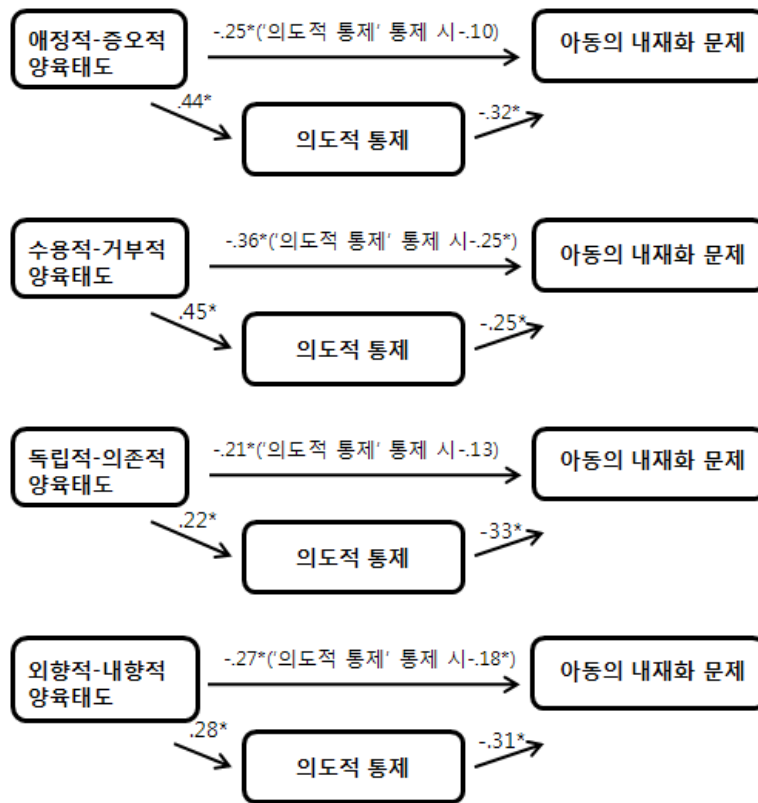


그림 3.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의도적 통제에 대한 매개효과의 수정 모형 ($p < .01$)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와 내재화 문제 간에 의도적 통제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bel Test(1982) 결과에서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z = -3.07, p < .05$;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 $z = -3.01,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학령전기 아동들의 의도적 통제가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에 매개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별 결과 논의에 앞서 국내 학령전기 아동들의 의도적 통제를 살펴봤을 때, 연령 간의 의도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hang et al, 2011; Eisengerg, Zhou et al, 2005; Kochanska, Murray & Harlen, 2000; Olson et al, 2005; Tracy et al, 2007; 문영경, 2009; 배윤진, 2011; 한영숙, 2010). 특히,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일관되게 의도적 통제의 발달이 더 높은 것에 대해 Kochanska 등(2000)과

Lemery-Chalfant 등(2008)은 성차의 원인이 양육 등의 환경보다는 타고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배운진, 2011). 또한 Zhou 등(2007)은 단순히 의도적 통제 능력의 평균 차이를 넘어 여아와 남아의 발달 과정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차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의도적 통제의 성별에 따른 편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녀의 발달적 차이에서 비롯된 발달적 편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의도적 통제가 타고난 특성을 반영하는 기질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배운진, 2011).

한편, 연구문제 별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 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봤을 때,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높았으며, 비행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높게 나타났다는 배운진과 임지영(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모의 양육방법과 외현화 문제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Eisenberg et al., 2009; Spinard et al., 2007; Gusdorf et al., 2010).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일수록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령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 통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의도적 통제는 모든 종류의 양육태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문영경, 2009; Murry & Kochanska, 2002; Eisenberg et al., 2007). 특히,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독립성을 조장하는 양육태도일 때 의도적 통제가 내재화 문제를 완전매개효과를 보였고, 외향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는 의도적 통제가 내재화문제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학령전기 아동의 내재화 문제(예: 불안, 위축, 우울 등)가 낮아지는 데 의도적 통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 보다 수용적이며, 아동의 독립성을 조장하고 모가 외향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도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와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적 적응(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간에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의존적 양육태도’와 ‘외향적-내향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 사이에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들의 의도적 통제를 살펴봄으로 인해 국내 학령전기 아동들의 의도적 통제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양육 환경과 심리적 적응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권연희(2011)는 Rothbart 등(2004)의 연구를 인용하며 의도적 통제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주의를 전환

하도록 돕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할 때 의도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를 바꾸는 것이 수월할수록 외현화 문제가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도 아동이 부정적인 느낌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 비롯되는 것이라고 제안한 Cole 등(1994)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즉,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이 높아질 수 있으나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하고 조절하여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완충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모의 구체적인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모의 성격적인 성향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양육태도의 영향력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모의 성향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 지에 대한 여부가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명확한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모의 성격적인 성향을 포함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모가 그동안 자녀에게 제공해왔던 양육태도의 영향력에 대해 학령전기의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심리적 적응과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한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피험자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특성 상, 구조방정식을 사용하면 각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나 피험자의 수가 구조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의도적 통제, 아동의 심리적 적응 사이의 모형을 검증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모의 보고를 통한 정보만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의도적 통제(EC)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질문지 형식이였다(배윤진, 임지영, 2011). 하지만 직접 영유아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EC battery와 같은 실험적 도구도 추후 연구에서는 함께 사용하면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의도적 통제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보다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평균 차이 검증(t-test, ANOVA)은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규명하는 분석방법이지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거나 회귀계수를 산출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연령대를 포함하여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대해 살펴본다면, 발달적 측면에서의 의도적 통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과 연령의 조절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같이 연령과 성별이 의도적 통제의 역할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도 환경 요인과 기질 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마지막으로,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환경적 요인간의 관계를 밝혀

내는 것 이상으로 아동의 심리치료가 두 요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아동의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2), 351-375.
- 김기홍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권연희 (2011). 남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 효과.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3), 595~609.
- 문영경 (2009).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윤진 (2011).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윤진, 임지영 (2011). 의도적 통제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1), 57-70.
- 배윤진, 임지영 (2012).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50(2), 53-64.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손소영 (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2).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도: 21세기사*.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강옥, 이미현, 한복환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2(2), 181-201.
- 이경옥 (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귀숙, 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유능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관계가 학령초기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575-593.
- 이은주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의 검증. *인간발달연구*, 18(2), 21-41.
- 이정수 (2011). 유아 및 교사변수가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자료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 이화옥 (2009) 문제행동이 감소한 아동을 둔 어머니의 가족 내 역할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혜인 (2011). 자기조절적 기질로서의 통제능력: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9-35.
- 한 나 (2008). 중학생의 행동억제체계,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영숙 (2010).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Carlos Valiente, Kathryn Lemery-Chalfant & Mark Reiser (2007). Pathway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 Clancy Blair, Rachel Peters Razza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78(2) 647-663.
- Grazyna Kochanska & Amy Knaack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Grazyna Kochanska, Kathleen T. Murray & Elena T. Harlan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 Hyein Chang, Sheryl L. Olson, Arnold J. Sameroff, Holly R. Sexton (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71-81.
- Julie Poehlmann, A. J. Miller Schwichtenberg. (2010) The Development of Effortment Control in Children Born Preterm.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4), 522-536.
-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Kochanska, G., Murray, K.,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Lemery-Chalfant, K., Doelger, L., & Goldsmith, H. H. (2008). Genetic relations between effortful and attentional control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365-385.
- Mary K. Rothbart, Lesa K. Ellis, M. Rosario Rueda, Michael I. Posner (2003). Developing Mechanisms of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1(6), 1113-1144.
- Min Deng (2008). A Developmental Model of Effortful Control: The Role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Reactivity, Sustained Attention i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Maternal Sensitivity. *the University of North*

- Carolina at Chapel Hill.*
- Murry, Kochanska (2002). Effortful control: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503-514.
- Nancy Eisenberg, Carlos Valiente, Tracy L. Spinard, Amanda Cumberland, Jeffrey Liew, Mark Reiser, Qing Zhou, and Sandra H. Losoya (2009).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 Nancy Eisenberg, Lei Chang, Yue Ma, Xiaoruihuang (2009).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to Chinese children's effortful control, ego resilience, and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455-477.
- Nancy Eisenberg, Qing Zhou, Tracy L. Spinard, Carlos Valiente, Richard A. Fabes, and Jeffrey Liew (2005).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Nancy Eisenberg, Yue Ma, Lei Chang, Qing Zhou, Stephen G. West, Leona Aiken (2007).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reactive undercontrol, and anger to Chinese children's adjustment. (2007) *Journal of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385-409.
- Paulo A. Graziano, Susan P. Keane, Susan D. Calkins (2010). Maternal Behaviour and Children's Early Emotion Regulation Skills Differentially Predict Development of Children's Reactive Control and Later Effortful Control.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9, 333-353.
- Peter Muris, Els van der Pennen, Rianne Sigmond, Birgit Mayer (2008). Symptoms of Anxiety,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Non-clinical Children: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 and performance-based Measures of Attention and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9, 455-467.
- Qing Zhou, Claire Hofer, Nancy Eisenberg, Mark Reiser, Tracy L. Spinard & Richard A. Fabes (200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ttention Focusing, Attentional and Behavioral Persist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School-Age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369-385.
- Rothbart M. K,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ew York: Wiley
- Sheryl L. Olson, Arnold J. Sameroff, David C. R. Kerr, Nestor L. Lopez, Henry M. Wellman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25-45.
- Tracy A. Dennis, Laurie Miller Brotman, Keng-Yen Huang, Kathleen Kiely Gouley (2007). Effortful Control,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442-454.
- Tracy L. Spinard, Nancy Eisenberg, Bridget Gaertner, Tierney Popp, Cynthia L. Smith, Anne Kupfer, Karissa Greving, Jeffrey Liew, and Claire Hofer (2007). Relation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 1170-1186.
- Tracy L. Spinrad, Nancy Eisenberg, Kassondra M. Silva, Natalie D. Eggum, Mark Reiser, Alison Edwards, Roopa Iyer, Anne S. Kupfer, Claire Hofer, Cynthia L. Smith, Akiko Hayashi, and Bridget M. Gaertner (2012).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Maternal Behaviors, Effortful Control and Young Children's Committed Complianc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8(2) 552-566.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Journal of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 Wolff Schlotz, Alexander Jones, Keith M. Godfrey & David I. W. Phillips (2008). Effortful control mediates associations of fetal growth with hyperactivity and behavioural problems in 7-to 9-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1, 1228-1236.
- Zhou, Q., Hofer, C., Eisenberg, N., Reiser, M., Spinrad, T. L., & Fabes, R. A. (200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ttention focusing, attentional and behavioral persist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school-age years.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369-385.
- Zhou, Q., Main, A., & Wang, Y. (2010). The relations of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and anger/frustration to chines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1), 180-196.

1 차원고접수 : 2012.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3. 3. 16.

최종게재결정 : 2013. 3. 19.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and Preschooler's Psychological Adjustment

Yu Jin Lee

Rodem Psychology & Learning center
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Eun Jung Chung

Ewha Wom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One hundred-ninety four preschoolers(94boys, 100girls, aged 5~6)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was assessed by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CBQ), maternal parenting was assessed by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assessed by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T-test was used to study developmental aspects of child effortful control depending on age and sex.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f the children depending on the age. However, it was found that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f the female children was more developed than that of the male children. Second, in the matter of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adjustment problem,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has mediating effects only in conditions of maternal parenting of affection and maternal parenting of reception, whereas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has mediating effects in all kinds of maternal parenting in the matt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preschooler's internalizing adjustment problem.

Key words : Effortful control, maternal parenting, externalizing adjustment problem, internalizing adjustment problem, mediating effects